

## 로테이션 돌렸다가 혼쫓난 전북... 코리아컵 결승행 '휘청'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가 졸전 끝에 강원FC와 비기며 '더블(2관왕)' 도전에 떡구름이 졌다.

전북은 지난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강원과의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준결승 1차전 홈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전북은 강릉 하이원아레나에서 2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승자는 승점 합계와 다득점 순서로 가리며, 원정 다득점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동틀일 시 연장전과 승부차기로 이어진다. 코리아컵에 나선 거스 포엣 전북 감독은 주전 멤버 대신 벤치 자원들을 출격시켰다.

폼파노, 송민규, 강상윤, 김진규, 홍정호, 송범근 등이 빠지고 티아고, 이승우, 이영재, 권창훈, 연제운, 김준호 등이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자신감이 느껴지는 명단이었다. 포엣 감독은 꾸준히 후보 선수들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바 있다.

이승우와 권창훈을 비롯한 여러 선수는 리그에서 교체로 투입될 때마다 눈도장을 찍기도 했다.

또한 최근 전북은 리그에서 22경기 무패(17승 5무)를, 강원은 5경기 무승(4무 1패)을 이어가고 있어 분위기 면에서도 압승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포엣 감독이 꺼낸 로테이션은 실패로 끝났다.

전북은 경기 초반부터 강원에게 주도권을 내주며 크게 흔들렸다.

선발로 출전한 이승우와 권창훈은 상대 압박에 고전했고, 믿었던 전진우마저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



### 20일 강원과 1차전 홈 경기서 1-1 무승부

### 이승우·권창훈 등 선발 출전했지만 침묵

경기 중간 포엣 감독이 화가 난 얼굴로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

전북은 하프타임 이후 강상윤을 투입했고, 후반 3분 프리킥 상황에서 터진 김영빈의 선제골로 앞서갔다.

그러나 후반 17분 구본철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고개를 숙였다.

경기 막바지 포엣 감독은 폼파노, 김진규, 최우진, 감보아 등을 교체 투입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전북은 강원과 비기면서 불안함을 안고 강릉 원정을 떠나게 됐다.

특히 강원 역시 로테이션을 돌렸다가는 점에서 더욱 자존심이 상하는 무승부다.

이번 시즌 전북은 포엣 감독 지휘 아래

명가 재건을 이어가고 있다.

K리그1에선 26라운드 현재 승점 60(18승 6무 2패)으로 선두를 꿰찼다.

2위 김천 상무(승점 43·12승 7무 7패)에 승점 17 차까지 달아나면서 4년 만의 리그 우승이 유력한 상황이다.

여기에 2022년 이후 3년 만에 코리아컵 우승까지 바라본다.

전북은 5년 만에 구단 역사상 두 번째 '더블'을 바라보고 있으나, 코리아컵 준결승 첫 경기를 가져오지 못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뉴시스



### 강기정 시장, 세계양궁대회 막바지 총점검

### 새단장 마친 광주국제양궁장 등 시설 최종 점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오는 9월 5일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 시장은 20일 남구에 위치한 '광주국제양궁장'을 찾아 경기장 시설을 최종 점검했다. 강 시장은 대회를 앞두고 새 단장을 마친 광주국제양궁장 경기장 시설을 비롯해 관객석·편의시설, 장애인 접근시설, 안전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장애인·노약자·외국인 관람객 등 누구나 차별 없이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재차 꼼꼼히 살폈다.

광주시는 앞서 세계양궁연맹(WA)의 규정에 맞춰 경기장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예·본선 경기가 열리는 광주국제양궁장은 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해 양궁장 폭을 기존 210m에

서 좌우 각 10m씩 총 20m를 확장하고, 선수대기실 및 장비보관실 등 다목적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

또 참가선수단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바닥 평탄화 작업을 하고, 보도블럭도 새로 깔았다. 양궁경기를 중앙에서 통제 운영할 수 있는 양궁경기중앙통제본부(DOS: Directing of Shooting)를 설치했다.

결승전이 열리는 5·18민주광장 특설 경기장에는 800여석 규모의 임시 관람석이 설치된다.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 및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종 시설 점검을 통해 대회 준비가 순조롭게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세계 각국 선수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I | FORENA

★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커뮤니티인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공: 운암 3단지 재건축청비사업조합 | 시공: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엔지니어링

## 황희찬, 과거 이청용 뛰었던 팰리스 향하나

“분명 좋은 영입 될 것”... 에제 대체자로 임대 이적 가능성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29)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울버햄튼을 떠나 크리스탈 팰리스로 향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지난 20일(한국 시간) "스티브 패리시 팰리스 구단주는 울버를 황희찬을 영입할 열의를 찾은 것처럼 보인다"며 "지난 시즌 황희찬은 리그에서 단 5차례밖에 선발 출전하지 못하는 등 경기 출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어 "황희찬 영입은 에베레치 에제의 이탈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에제는 울리버 글라스너 감독 체제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이지만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 팰리스는 황희찬을 임대 영입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분명 좋은 영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팰리스가 최근 토트넘 홋스퍼와 아스널의 영입 타겟이 된 에제의 대체자로 황희찬을 낙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황희찬의 울버햄튼 이적을 성사시킨 맨체스터 시티가 팰리스로 향할 거란 소문과 맞물린다.

팰리스는 과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청용(현 울산 HD)이 뛰었던 클럽이다.

이청용은 팰리스 소속으로 공식전 50경기에 출전했고 2골 2도움을 기록한 바 있다.

황희찬은 지난 시즌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중도 부임한 뒤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렸다.

발목과 햄스트링 부상이 겹친 가운데 리그 21경기 동안 단 2골에 그쳤고, 출전 시간은 649분까지 떨어졌다.

당시 페레이라 감독은 황희찬이 팀을 떠나는 게 나를 거라고 인정하면서 "황희찬은 주전으로 뛰길 원하지만 약속할 수 없다. 나는 선물을 주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황희찬은 울버햄튼에 잔류해 새 시즌을 시작했으나, 지난 17일 맨체스터 시티와의 EPL 1라운드 개막전 홈 경기에서도 교체로 간신히 그라운드를 밟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시스

### 홍명보호, 25일 9월 A매치 명단 발표... 내달 1일 미국으로 출국

### 7일 오전 6시 미국·10일 오전 10시 멕시코 상대

홍명보호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준비를 위해 다시 맞을 올린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9월 A매치에 나설 축구대표팀 명단을 발표한다. 시간은 오후 2시로 예상된다.

축구대표팀은 내달 7일 오전 6시(한국 시간)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의 스포츠 일러스테이트 스타디움에서 미국과, 10일 오전 10시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 파크에서 멕시코와 두 차례 A매치를 벌인다. 명단 발표는 보통 오전에 진행되지만, 이번 기자회견은 오후로 늦춰졌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뉴시스를 통해 "새 시즌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를 비롯해 유럽 리그들이 늦게 개막해 곧바로 코칭스태프 미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선수들을 보고 여러 회의를 진행한 다음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에서 눈도장을 찍었던 새 얼굴들이 다시 태극마크를 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명단 발표 이후 축구대표팀은 내달 1일 오전 10시에 인천국제공항에 모여 미국으로 떠난다.

프로축구 K리그1 시즌이 한창이라 출전 별도의 훈련은 진행하지 않는다.

본진은 홍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K리그 등으로 구성되며, 주장 손흥민(LAFC)을 포함한 해외파는 미국 현지에서 합류한다.

축구대표팀은 미국과 멕시코를 차례로 상대한 뒤 11일 귀국할 예정이다.

북중미 월드컵을 대비하는 홍명보호가 동아시아컵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축구화 끈을 동여맨다.

이번에는 월드컵 개최지에서 개최국들과의 귀중한 스파링 무대를 갖는다.

홍 감독은 유럽에 머물며 해외파를 점검 중인 주앙 아로소 수석코치와 티아고 마이어 코치, 한국에서 K리그를 체득하고 있는 국내파 코치들과 소통하며 9월 A매치 명단 확정에 집중한다. /뉴시스